오륙도카툰
남구 이끌 쌍두마차
남구
김정휘

5월 13일 제7회 하수처리장음악회

부산환경공단이 주최하는 제7회 하수처리장음악회가 오는 5월13일(금) 오후 7시 30분 남부사업소 환경공원(용호동 이기대 입구 하수처리장)에서 열린다.

환경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과학적 운영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음악회는 무료이며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붐이 진행을 맡고 바비킴, 정동하, 홍진영, 김연자, 윤수일, 보이스퍼, 투아이즈 등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뮤지션과 아이돌 그룹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날 음악회는 KNN이 녹화중계한다.

☎760-3251~7

모집·안내

도시농부 참가자·봉사자 모집

사)기러기문화원에서 도시농부 교육 참가자와와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5월11일~11월까지 기러기문화원 분소 어린이교육문화센터 옥상에서 작물재배 관리 기초교육과 수확물 나누기 등을 배운다.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모두 10회에 걸쳐 교육한다. 선착순 20명이며 어린이, 청소년도 지원가능하다. ☎642-1515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제3회 봄축제

대연동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지난 19일 병원 잔디광장에서 환우와 환우가족, 병원직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꽃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로 제3회 그랜드 봄축제를 열었다. 이날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의 춤·노래를 비롯해 부산미술협회 소속 작가들를 초청해 어르신들의 도자기 체험을 돕는 등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토요 민속 체험 프로그램

부산포민속박물관(관장 김정민)에서 부산시 지원사업으로 2016년 토요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자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 5월7일, 21일 6월4일, 18일 네 차례 박물관 내에서 가족을 동반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전통연·부채·장승만들기, 다도체험 등의 시간을 갖는다. 4월26~28일 선착순 접수.

☎803-4300

문자메시지로 전기요금 확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신청세대에 한해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검침 같은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23(휴대폰 지역번호+123) 연락하거나 검침직원에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7기 등대빛아카데미 특강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높이기 위한 제7기 남구 등대빛아카데미가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4월 27일(14:00~16:00)에는 충남대 이계호 교수를 초청해 '바른먹거리가 내 몸을 살린다', 5월4일(14:00~16:00)에는 박용준 인디고 편집장의 '삶을 바꾸는 책 읽기 특강'이란 주제로 열린다. 무료.

용호 주민 카메라 강좌·옛 사진물 수집

용호4동 주민자치회에서 용호동 풍경이 담긴 옛 사진을 찾는다. 풍경이나 인물사진으로 4월25일~5월4일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진은 향후 사진전 개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카메라 기법 수강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용호동 주민을 대상으로 또 카메라 기법을 익히는 무료 강좌를 열고 수강생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5월 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수업은 5월12일~7월29일(매주 목요일) 진행한다. ☎607-6785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모집

부산문화재단이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가와 뭐라도 하는 모임' 참가자를 모집한다.

감만창의문화촌 입주 작가들과 함께 4월 23일부터 9월까지 10주간 공예, 회화, 문학, 무용 등 8개 프로그램을 예술가들의 작업실에 직접 모여 밀도 있게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는 전화나 방문 선착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co.kr) 참조. ☎745-7249

부산여성회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산여성회관(대연동 옛 남부경찰서 부근)이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설계, 자신감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무료이며 회기당 10명 이내로 매월 2회(월~금 13:30~17:30, 5일간 총 20시간) 운영한다. 문의 여성회관(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610-2017, 2009

5월28일 청소년 힙합댄스대회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박봉수)는 제5회 청소년힙합댄스 경연대회를 오는 5월28일 개최한다. 평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대회는 모범청소년 표창 수여식이 있는 1부 행사와 댄스 경연대회인 2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경연대회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3팀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5월2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secom73@nate.com)로 접수받고 있다. ☎010-9327-8858

카페와의 공존 통해 예술 지평 넓힌다

갤러리 앤 키친포

문현금융단지 내 BNK아트갤러리

갤러리에서 단순히 그림만 보던 시대는 지났다.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 작품을 접하며 브런치를 즐기고, 커피를 마시고, 공연도 보는 갤러리 카페가 대세다. 남구 곳곳에 숨어있는 갤러리를 소개한다.

카페P&O갤러리

갤러리앤카페 가우디2015

동명갤러리

■ 남구의 문화지도

〈2〉 갤러리

1 갤러리앤카페 가우디2015

유엔기념공원 인근 한적한 골목에 올해 1월 건축사 박성출씨가 문을 열었다. 2층은 건축사무소로 운영하고 갤러리는 1층과 지하에 자리하고 있다. 새내기 갤러리임에도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주제는 1개월 단위로 교체하며 현재 장안순, 김시현 외 3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남구 유엔평화로 110-10 ☎621-5788

2 BNK아트갤러리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은행 본점 1층에 위치해 있다.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근한 전시를 목표로 2014년 개관했다.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5월7일까지 프랑스 밀레 미술관 초대작가 장태묵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에 맞게 '행복'이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미술학과 졸업생들의 우수 작품을 선발, 전시하는 '예비작가 발굴 기획전'을 진행한다.

- 남구 문현금융로 30 ☎246-8975(https://art.bnkgallery.co.kr/index.php)

3 카페 갤러리 그리다

꽃집, 화실, 갤러리 카페를 동시에 운영한다. 3개월마다 새로운 전시를 준비한다. 2층 갤러리 공간뿐 아니라 1층의 카페에도 작품을 전시해 자연스러운 관람을 이끈다. 음료 외에 가벼운 브런치 메뉴도 취급한다. 갤러리 측은 8500원 비빔밥이 계모임 최고 인기 메뉴라고 귀띔한다. 매월 11일 스콘데이도 진행하며 5주년 행사로 일정 금액이상 구입시 예쁜 미니화분을 증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6월30일까지 이주희, 정선미 2인전을 선보인다.

- 남구 유엔로 219-4 ☎010-2448-8535

4 한중문화원 한국아트미술관

중국의 문화 예술을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교류재단이 2007년 11월 개관했다. 대천초등학교 옆에 있다. 올해 초 국제기념주화·우표전시회에 이어 현재 재단의 소장하고 있는 중국 서예 작품과 수묵담채화를 전시하는 '흑백리'전을 열고 있다. 1층에는 국제차문화원이 있다.

- 남구 조각공원로 29 ☎612-3400 (www.kcef.kr)

5 갤러리 앤 키친 포

남구 내 갤러리 가운데 터줏대감이다. 2001년 9월 개관했다. 당시 생소하던 갤러리에 카페를 접목시킨 1세대 주자다. 1년 단위로 기획전을 진행하고 기획전시가 없을 때는 홍익대 도예과 출신인 박경숙 대표의 소장 작품들을 전시한다. 갤러리보다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이 더 나있다. 전통 이태리 음식과 와인을 판매하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 남구 수영로 282 ☎626-8636 (http://cpfo.tistory.com)

6 동명갤러리

동명대학교 내에 마련된 갤러리 전용관이다. 2015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실 2곳과 북카페를 갖고 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국내외 유명 작가의 기획전을 마련하고 있다. 첫 기획전으로 한성희 작가의 판화 작품을 지난 3월30일부터 4월29일까지 전시한다. 5월25일~6월24일 진영섭 작가의 금속공예전이 열린다. 전시 소식은 대학 홈페이지 '동명갤러리 전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구 신선로 428(동명대 건축디자인관 3번건물 2층) ☎629-2215

7 카페 살베 갤러리

갤러리와 공연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음료도 팔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선보인다. 전시회는 한 달 주기로 바뀌며 '열정 충만'한 화랑 주인이 지역 작가들에게 대관료 없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팸플릿도 무료 제작해준다. 전시 외에 현대무용, 현악기, 우크렐레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열린다. 매일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초콜릿케이크 일종인 수제 티라미수를 맛볼 수 있다.

- 남구 용소로13번길 17 ☎622-3181 (http://blog.naver.com/harr124)

8 문화골목 갤러리 석류원

부산의 대표적 문화복합공간인 '문화골목' 안에 설치된 갤러리다. 현재 20여 년 동안 철을 작업해 온 조각가 우징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철로 만든 현악기를 관람객이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이다. 문화골목은 건축사 최윤식씨가 6년 전 가정집 4채를 사들여 이를 연결해 소극장, 라이브 카페, 찻집, 갤러리, 주점 등을 한 곳에 모은 이색 공간이다. 창의적 발상과 문화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해 부산다운건축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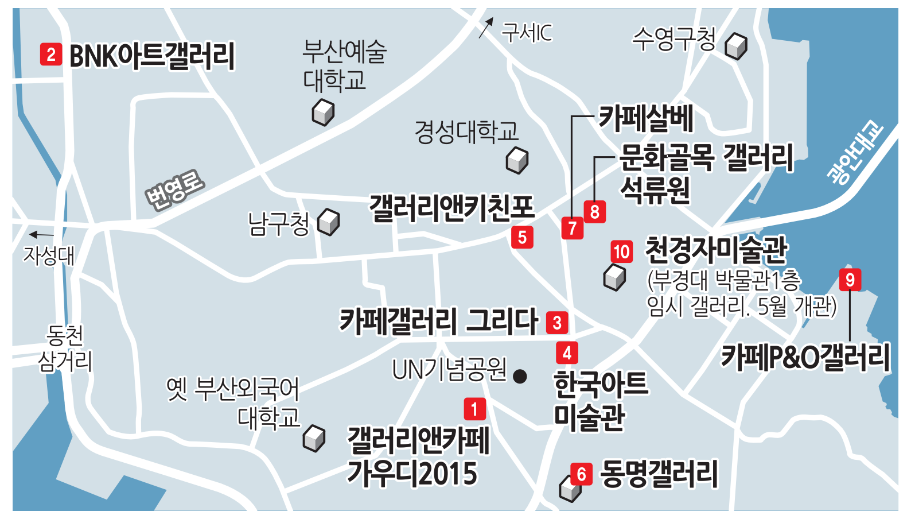
- 남구 용소로19번길 43-1 ☎625-0730 (http://blog.naver.com/golmok58)

9 카페P&O갤러리

용호동 바닷가 섶자리 횟집촌에 자리잡은 카페 겸 갤러리다. 부산의 대표 주거 지역인 용호동에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는 점을 아쉬워한 옥춘희 관장이 2014년 11월 돈 되는 횟집을 접고 '돈 안되는' 갤러리를 열었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갤러리, 맞은편은 레스토랑이다. 두 곳 다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바다 풍광이 압권이다.

갤러리 공간은 작품 전시 외에 교육, 세미나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학당, 우크렐레·탱고·드로잉 수업 등 눈여겨볼 문화 프로그램이 많다.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관 이래 작가나 강사들로부터 대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 남구 분포로 66-30 ☎928-1233



10 부경대 천경자미술관(가칭)

한국 화단을 풍미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개인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박물관 건물 1층에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천 화백 유족이 부경대에 고인의 유작과 개인소장품 4000여점을 기증하고 대학은 2020년까지 교 내에 독립미술관을 짓기고 약속한 것에 따른 첫 조치다. 이번에 문을 여는 미술관은 임시갤러리로 독립미술관 건립 이전까지 천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 일부가 전시될 예정이다.

글·사진=서다솜 주무관
(남구청 문화체육과)

최영 장군 탄신 700년… 감만동 무민사 향사 봉행

이종철 남구청장이 무민사 향사의 제관으로 최영 장군 영정 앞에서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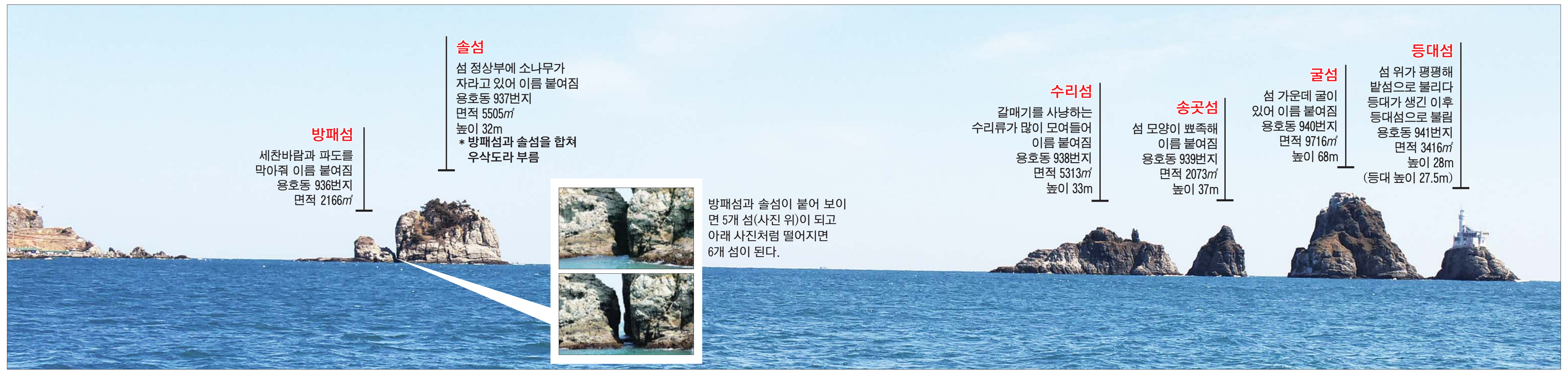
올해는 고려의 명장이자 충신 최영 장군(1316~1388)의 탄신 7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구와 무민사보존위원회는 지난 20일 감만동 무민사에서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 장군을 기리는 향사를 봉행했다.

무민사는 최영 장군의 충혼을 모신 사당이다. '무민(武愍)'은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참수한 최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직접 내린 시호다.

감만동은 최영 장군과 인연이 깊다. 감만의 옛 지명 감만포(戡蠻浦)는 '오랑캐를 무찔러 이긴 포구'라는 뜻으로 고려말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를 최영 장군이 격퇴해 어민을 구한데서 이름 붙여졌다. 무민사는 장군의 충절과 청백리정신, 감만 지역의 화를 막아준 은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초기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뒤 허물어진 무민사를 감만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재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민사 향사는 절기상 곡우에 맞춰 매년 양력 4월20일 낮에 봉행한다. 무민사보존위원회가 주관하고 남구 관내 기관장이 제관으로 참여해 분향한다.

아래 조선부산포초량화관지도 중앙에 붉게 칠해진 언덕이 무민사가 있는 감만동 일원이다. 황토산인 홍곡산 때문에 바다에서 보면 마을 일대가 붉게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제는 감만동을 적기(赤崎)로 고쳐 불렀다.


솔섬
섬 정상부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짐
용호동 937번지
면적 5505㎡
높이 32m
＊방패섬과 솔섬을 합쳐 우삭도라 부름
방패섬
세찬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이름 붙여짐
용호동 936번지
면적 2166㎡
방패섬과 솔섬이 붙어 보이면 5개 섬(사진 위)이 되고 아래 사진처럼 떨어지면 6개 섬이 된다.
수리섬
갈매기를 사냥하는 수리류가 많이 모여들어 이름 붙여짐
용호동 938번지
면적 5313㎡
높이 33m
송곳섬
섬 모양이 뾰족해 이름 붙여짐
용호동 939번지
면적 2073㎡
높이 37m
굴섬
섬 가운데 굴이 있어 이름 붙여짐
용호동 940번지
면적 9716㎡
높이 68m
등대섬
섬 위가 평평해 밭섬으로 불리다 등대가 생긴 이후 등대섬으로 불림
용호동 941번지
면적 3416㎡
높이 28m
(등대 높이 27.5m)

눈으로만 보는 섬? 치명적 아름다움 품은 신비의 섬!

방패섬·솔섬에서 오륙도 이름 유래

행정구역상 6개섬으로 인정

천혜비경 불구 부산시민 발길 적어

굴섬 '가마우지의 비밀' 흥미로워

Discovery Namgu

남구의 재발견 오륙도

"부산 사람들, 오륙도 잘 안 갑니다, 이유야 모르죠."

섬이 너무 가까우면 섬 대접을 못 받는 모양이다. 오륙도를 오가는 유람선 성조호 매표소 직원은 승객 열 명 중 아홉은 낚시꾼이고, 그나마 일반 승객은 외지관광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오륙도 관광의 성수기는 가을 고등어철"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의 정체성이자 대륙의 관문 대접을 받는 오륙도, 하지만 막상 오륙도를 밟아봤다는 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오륙도, 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섬이 되었을까.

오륙도를 향하여

정원 49인승 성조2호에 몸을 싣고 미지의 섬, 오륙도로 향했다. 성조호는 오륙도와 인근 방파제를 오가는 오륙도 전용 유람선. 해뜨기 30분전~해진 후 30분후까지만 운행하고 승선료는 어른 1만원, 어린이 5000원을 받는다.

관광객은 없고 낚시꾼 몇 명만 배에 올랐다. 솔섬을 지날 무렵 선장이 구성진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손님 여러분, 바로 저 섬 때문에 오륙도가 5개가 되기도 하고 6개가 되기도 하는…."

오륙도는 방패섬과 솔섬이 밀물 때는 두 개 섬으로, 썰물 때는 한 개 섬으로 된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또 동쪽에서 보면 섬이 6개, 서쪽에서 보면 5개로 보여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다. 오륙도의 명칭은 방패섬과 솔섬에서 비롯됐다. 방패섬과 솔섬의 거리가 채 1m가 되지 않아 보는 각도에 따라 섬이 붙어 보이거나 떨어져 보인다. 또 두 섬을 잇는 암반이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겨 두 섬이 하나가 되기도 둘이 되기도 한다. 방패섬과 솔섬을 합쳐 우삭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행정 구역상 오륙도는 엄연히 6개 섬이다. 지난 1977년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6개 섬에 '용호동 936~941번지'로 각각 지번을 붙이고 토지 대장에 등재했다. 사람으로 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격이다. 그런가 하면 1797년 용당포에 온 최초의 이양선인 영국의 프로비던스호의 브라우톤 함장은 용당앞바다에서 8일간 머물며 부산항 최초의 항박도를 그렸는데 오륙도를 '블랙락스(Black Rocks·검은 바위)'로 표기해 서양에 알렸다.

유람선은 5분 남짓 만에 오륙도의 유일한 '유인도'인 등대섬에 닿았다. 풀 한포기 찾기 힘든 거뭇한 바위섬에 하얀 등대탑이 창검처럼 우뚝 솟아 웅장함이 느껴진다. 뭍에서 직선거리로 1㎞ 정도에 불과해도 제법 분위기는 절해고도를 흉내 낸다.

난간을 타고 올라 등대 앞에 섰다. 갈매기가 새겨진 큐브 모양의 금속 조형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시민 공모를 통해 지난 2010년에 세운 '부산 갈매기' 노래비다. 그 위로 등대섬의 역사를 요약한 작은 전시관도 있다.

오륙도에 등대가 세워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11월이다.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오륙도 앞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잦아지면서 길잡이가 필요했다. 당시 등대 높이는 6.2m로 아담했지만 외환위기가 서슬 퍼렇던 1998년 12월 지금의 웅장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28m 섬 정상에 27.5m 높이의 등대를 세웠다. 등명기가 설치된 등대 꼭대기에 오르면 이웃 굴섬과 키높이가 비슷하다. 등대를 설계한 건축가는 '완전하기 보다는 미완의 형태로 여운을 남기고 싶었다'며 건축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무지렁이 눈에는 다부지고 튼실한 게 마음에 쏙 든다.

등대를 닮은 사람들

"등대생활에서 로망 같은 것은 없을까요?" 취재진의 엉뚱한 질문에 오륙도등대지기 양희룡 소장은 '소이부답(笑而不答)' 하듯 빙긋이 웃고 만다. 미소가 등대를 닮았다.

등대지기는 2인 1조로 7일간 등대 근무를 하면 3일은 뭍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를 반복한다. 2년 정도 지나면 부산의 다른 유인등대인 영도와 가덕도로 순환 근무를 한다. 뭍에서 가깝고 유람선이 수시로 다녀도 등대 내 숙식 근무가 원칙이다.

꽃노래도 한 두 번이듯 바다 풍광이 아무리 곱다해도 등대지기의 낮은 단조롭고 밤은 길다. 외로움은 등대지기의 숙명이다. 원 소장은 "근래 감만부두를 오가는 초대형 크루즈나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는 항공모함을 코 앞에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등대지기 생활 30년이 됐다는 그는 오륙도에서 10년을 근무했다. "태풍 불면 정말 겁납니다. 철문 내리고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오륙도에는 외로운 등대지기들의 오랜 벗이 있다. 가마우지다. 등대섬 바로 옆 굴섬에 서식하며 까만 돌섬을 배설물로 만년 설산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들이다. 시베리아 혹한을 피해 가을 무렵 내려와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떠나는 철새다. 많을 때는 수천마리가 굴섬을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이 모습을 뭍에서는 좀체 보기 어렵다. 등대섬에서만 관측 가능하다. 아침 일찍 낙동강으로 고기잡이 나갔다 해거름 돌아오는데다 굴섬 뒤편(등대섬 맞은편)에 집단 서식하기 때문이다.

오륙도는 한국의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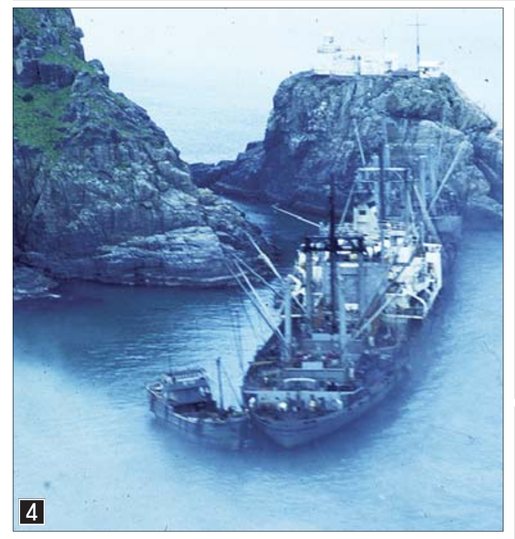
등대를 나와 섬 뒤편으로 내려갔다. 낚시꾼이 잉어만한 도다리를 낚아 망태기에 넣어 놨다. "새벽부터 나왔는데 한 마리 건졌습니다,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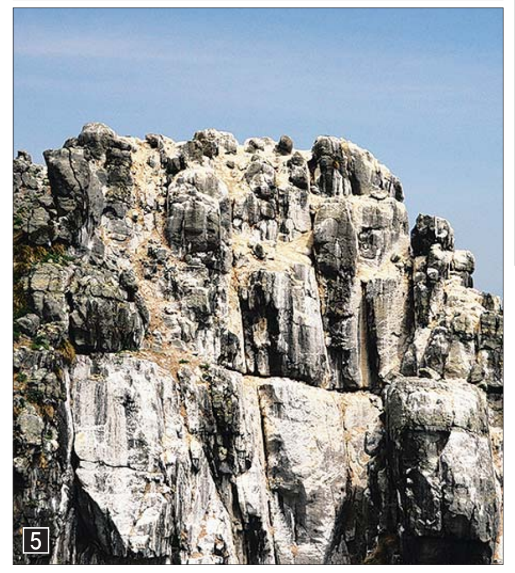
제법 큰 파도가 바윗돌을 때리며 하얗게 부서질 때면 묘한 청량감이 느껴진다. 후쿠오카와 부산을 오가는 연락선이 오륙도를 돌아간다. 해무 때문에 대마도는 보이질 않는다. 마침 결혼 20주년을 맞아 경북 구미에서 오륙도 관광을 왔다는 부부를 만났다. 외국여행을 계획했다가 우리 국토를 제대로 둘러보자는 생각에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다. 오륙도스카이워크를 걷다 유람선이 눈에 띄여 등대섬에 왔는데 이런 비경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오륙도가 왜 오륙도인지 이번에 정확히 알았어요.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등잔 밑이 어둡듯, 곁에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다. 여유로운 주말, 한번쯤 '오륙도 상륙'을 감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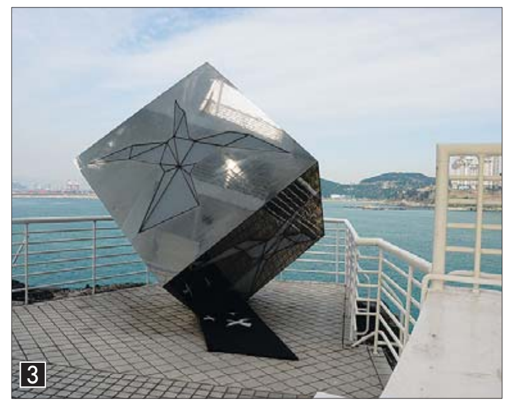
■ 오륙도등대 연혁

1937년 11월 첫 점등
1957년 12월 사무실 신축
1979년 12월 직원숙소 개축
1987년 태풍 셀마로 부속건물 유실
1995년 12월 선착장·저수조 건설
1998년 12월 현재의 등대건물 신축
2010년 10월 부산갈매기 조형물 설치

오륙도 등대섬 뒤편에서 올려다 본 등대 모습.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경북 구미에서 오륙도로 관광 왔다는 부부가 동해 바다를 향해 환호하고 있다.







1 오륙도등대 양희룡 소장이 등탑에 설치된 등명기를 검사하고 있다. 30년간 등대지기 생활을 한 양 소장은 오륙도등대에서 10년을 보냈다.
2 지금의 오륙도등대가 세워지기 이전의 등대 모습
3 오륙도등대에 설치된 부산갈매기 노래비
4 짙은 안개로 오륙도에 좌초된 프랑스 화물선. 한국전쟁 때인 1952년도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5 굴섬을 하얗게 뒤덮은 가마우지 배설물.

오륙도 6개 섬 땅값 4억5188만원

2015년 개별공시지가… 등대섬 6,31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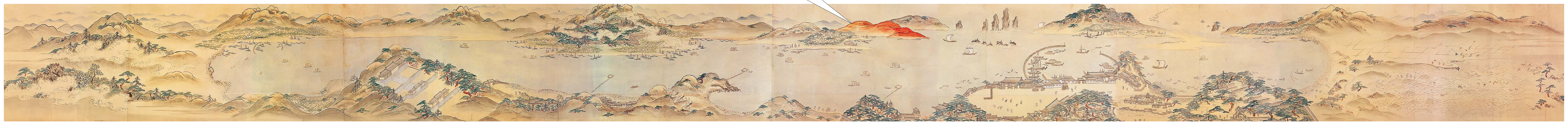
오륙도는 지번을 부여받은 엄연한 토지다. 따라서 땅값이 형성된다.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6개 섬의 총 합계는 4억5188만원으로 산정된다.

방패섬이 4115만원, 솔섬 1억180만원, 수리섬 9829만원, 송곳섬 3938만원, 굴섬 1억807만원, 등대섬 6319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비싼 섬은 방패섬과 송곳섬으로 ㎡당 1만9000원이다.

남구청과 대한지적공사가 공동으로 오륙도의 면적을 정밀 실측했던 지난 1998년 평균 땅값은 ㎡당 5327원으로 6개 섬이 합산이 1억5016만원이었다. 18년만에 땅값이 3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오륙도가 국가 지정 명승지인데다 소유권이 해양수산부에 있어 거래는 되지 않는다.

오륙도스카이워크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 오륙도 땅값(2015년 기준)
방패섬 4,115만원
솔 섬 1억180만원
수리섬 9,829만원
송곳섬 3,938만원
굴 섬 1억807만원
등대섬 6,319만원



고지도에 나오는 오륙도와 가마우지

18세기 초량 왜관 일대와 부산항을 그린 조선부산포초량화관지도(朝鮮釜山浦草梁和館地圖)다. 폭이 10m가 넘는 두루마리 형태의 수묵담채화다. 서쪽의 송도 해안부터 동쪽 부산진성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 가운데 붉게 칠해진 부분이 감만동이다. 그 옆으로 오륙도 5개 섬이 그려져 있고 오륙도 아래로 나암으로 추정되는 바윗돌에 앉아 있는 가마우지들도 보인다.